



응급환자 이송 119구급차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 유발... 60대 환자 이틀후 사망 현행법상 긴급상황이라도 사고나면 면책 없어 경찰, 차량 운전 구급대원 신병처리 놓고 속고

최근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119구급차·승용차 충돌사고'는 119구급차의 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19구급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구급대원의 진술, 인근 CC(폐쇄회로) TV 영상을 토대로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운전한 제주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소방교)은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는 지난 12일 발생했다. 60대 응급환자와 구급대원 등 4명을 실은 구급차는 이날 오전 6시28분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에 진입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119구급차는 환자를 제주시 연동 종합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아라동에서 연동 방면으로, 승용차는 오라CC에서 제주보건소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다.

이중 60대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환자는 충돌 사고 전부터 의식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호흡과 맥박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사고를 냈을때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경찰청이 마련한 지침에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불인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기준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이나 검찰은 긴급 자동차 정당행위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다.

60대 환자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경찰이 밝혀야 할 주요 쟁점이다.

경찰은 숨진 60대 환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만약 당시 교통사고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나온다면 운전을 한 구급대원은 경찰청 지침상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구급대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보물 ‘탐라순력도’ 이미지 쓰세요”

도·국립제주박물관 어제부터 사용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제주박물관은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의 이미지를 제주목관아 홈페이지(http://www.jeu.go.kr/mokkwan/index.htm)를 통해 26일부터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도 현존 최고(最古)의 단독지도인 한라장족과 18세기 초 제주도의 행사, 군사시설, 지형, 인구, 풍물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 현재 국보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 사진

이전에는 세계유산본부와 국립제주박물관의 허락을 얻은 신청자에게만 탐라순력도 이미지를 전송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절차가 복잡했다. 또 이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세계유산본부 및 국립제주박물관이 협업해 국민들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했다.



특히 홈페이지서 간단한 통계만 입력하면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번에 개방된 탐라순력도는 제주 역사 교육 현장, 문화 산업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만 표시하면 별다른 이용 허락 없이 누구나라도 이용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조상윤기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도내 수협 2심도 '무죄'

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로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수협은 2017년 3월 28일 창고 저장탱크에 균에 오염되고 날파리 사체가 떠 있는 멸치액젓 300t을 보관해오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맨처음 적발 당시 경찰이 액젓저장탱크 6개 중 1개에서 1회용 종이컵으로 채취한 액젓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시료 채취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위반한 것이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2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규정에 따라 4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혼합하는 방식으로 2개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경찰이 채취한 시료서 균이 검출됐지만 채취·운송·보관 과정에서 2차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기자

에월고 미술과 교육과정 '화제물'이

2020년 대입 큰 성과 서울대·홍익대 등 합격 특수목적과 성공적 출발 “창의성 높인 교육 효과”

미술 특수목적과를 운영하고 있는 에월고등학교(교장 김형준)가 2020학년도 대학진학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시 전형 결과 에월고 재적학생 39명 중에서 서울대 1명, 홍익대 5명, 한국예술종합학교 2명, 이화여대 1명, 경희대 1명, 덕성여대 1명, 성신여대 1명, 중앙대 2명, 단국대 3명 등 서울지역 대학에 다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에월고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타지역의 예술고에서도 거두기 어려운 성과로 미술과 설립 초기에 기존 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며 “타지역 미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비해 늦게 출발한 상황에서 기존 운영 방식을 답습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벌인 덕분”이라고 밝



에월고 미술과 오건일 부장교사(맨 오른쪽)와 김형준 교장, 학생들이 2020대입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혔다. 그동안 에월고는 학원에서 익힌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 시험을 배제하고 내신성과 미술에 대한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특히 에월고는 학생들을 미래의 예술가로 인정하는 교육을 운영하면서 미술과의 모든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연중 독서토론 운영을 통해 창의성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같은 바탕 위에 치러진 창송미전, 드로잉전, 자율동아리 전시인 4·3청소년 아카데미 미술전, 환경설치미술전 등은 형식이나 내용에

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생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고의 교사진과 실습 환경, 창의적 공동수업, 전문가 특강, 미술·진로 캠프, 방과후 학교, 지속적인 미술봉사활동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에월고는 “그동안 고교체제개편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정책이 주효했다”며 “미술과의 성공적 출발과 함께 에월고 일반과 학생들도 성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건설기계 불법정비 점검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19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시정요구 12건, 등록취소 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반기에는 총 168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2년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제주도는 사업자 편향적” 동물테마파크 반대측 회견

선홍리 마을회와 선인분교 학부모회,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마을 갈등의 중심에 사업자 편향적 제주도정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

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지역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지역 갈등 사안이 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외부 갈등 전문가를 투입한 1호 갈등 관리 사업으로 관리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과 반대대책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원 지사의 권위주의적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앵무(무독) · 천혜앵무(무독)
한라봉 · 탐나는종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외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